

주식전략

주식전략 담당 이상연

lee.sang-yeon@shinyoung.com

실적시즌의 출발점

분석의 기본가정

-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계기로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KOSPI 반등 시도에 무게
- 단, 반도체 주요 업체의 가이던스 상향 및 금리와 유가 부담 완화 지속 필요

추석 연휴의 해외 흐름은 국내 증시의 반등 시도에 우호적이다. 미국 현지 23~25일 나스닥은 0.64% 하락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16% 하락에 그쳤고, 25일에는 1.41% 반등했다. 기술주 전반의 상승으로 확대해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지수에 영향이 큰 반도체의 상대적 강세는 확인됐다. 미중 정상회담도 무역휴전 연장과 AI 대화라는 예상 범위의 결과에 가까웠다. AI 사고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등 갈등 관리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개발과 투자의 속도를 함께 낮추는 구속력 있는 합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각국의 기술 주도권 확보와 AI 인프라 투자 경쟁이 이어진다는 기존 판단은 유지한다.

이번 주부터 10월 초 실적 시즌까지는 반도체 대형주가 주도하는 KOSPI의 단기 반등에 무게를 둔다. 마이크론 실적, 삼성전자 배당락과 잠정실적이라는 일정은 6월 말~7월 초와 닮았지만, 이를 맞는 주가와 수급의 출발점은 달라졌다. 당시에는 급등한 주가가 높아진 기대를 충족해야 했고, 실제로 마이크론 실적 직후 상승분을 반납한 데 이어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일에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지수가 급락했다.

지금은 7월의 큰 폭 조정을 거쳤고, 개인이 외국인 매물을 받아내던 구도에서 기업의 매수가 하방을 지탱하는 구도로 바뀌었다. AI 투자 기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실적 전망이 다시 높아진다면, 낮아진 주가와 이익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적 확인을 앞둔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대응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조정을 거친 가격에서 실적을 확인하는 데다, 연휴 중 미국 반도체의 상대적 강세도 투자심리에 우호적이다. 이번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6월 말과 같은 차익실현을 기계적으로 예상하기보다, 메모리 수요와 가격 전망이 주가에 반영된 우려를 얼마나 덜어주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추세로 이어지려면 실적 확인 이후에도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며 자사주 매입 이후의 수급 공백을 메워야 한다.

단기 판단을 바꿀 신호는 1)좋은 실적에도 발표 당일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 또는 2)금리와 유가가 재차 급등하는 경우다. 이때는 이익 개선보다 매물과 할인율 부담이 우세하다고 보고 반등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글로벌 이벤트 리뷰

1) 반도체의 상대적 강세가 긍정적

추석 연휴 글로벌 증시에서 주목할 부분은 반도체의 상대적 강세다. 미국 현지 23~25일 나스닥과 S&P500은 각각 0.64%, 0.27% 하락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낙폭은 0.16%에 그쳤다. 장기금리와 유가 상승이 증시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서도 AI 관련 투자와 서비스 확대 기대가 반도체와 일부 기술주의 하방을 지지했다.

미국 증시는 23일 동반 하락한 이후 24일 보합권을 거쳐 25일 반등했다. 23일에는 미국 9월 종합 PMI 예비치가 58.4로 전월(56.0) 대비 상승하며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해 추가 긴축 우려로 이어졌다. 24일에도 금리와 유가 부담이 이어졌으나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가 낙폭을 제한했다. 25일에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협상 기대와 AI 관련주 강세가 반등을 뒷받침했다. 개별종목으로는 메타가 AI 에이전트 '뮤즈'의 흥행과 신규 수익원 확보 기대에 2.0%,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의 코드 생성·상시 작동 에이전트 기능 공개에 힘입어 3.6% 상승했다. 데이터독도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모니터링 수요 확대 기대가 이어지며 8.3% 올랐다.

채권시장에서는 경기 호조가 금리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국 9월 종합 PMI 예비치가 58.4로 20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높은 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부각됐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2일 4.96%에서 23일 5.11%, 24일 5.18%로 상승했으며, 25일에도 5.17%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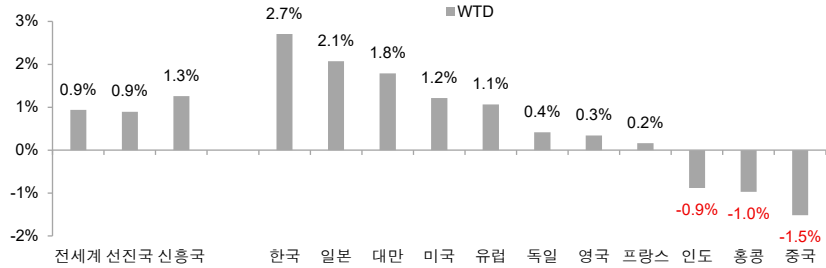
국제유가는 연휴 후반 증시의 반등 여건을 마련했다. 중동 공급 차질 우려로 24일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94.61달러, 106.60달러까지 상승했다. 이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 기대가 반영되면서 25일에는 92.41달러, 104.32달러로 하락했다. 공급 불확실성이 해소된 단계는 아니지만, 유가의 추가 상승이 진정되면서 물가와 기업 비용에 대한 우려를 일부 덜어줬다.

유럽 증시 역시 연휴 초반 조정 이후 25일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반등을 주도한 업종에는 차이가 있었다. 25일 은행과 여행·레저가 각각 1.3%, 0.8% 상승한 반면 에너지는 1.3% 하락했다. AI 기대가 두드러졌던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유가 하락에 따른 업종별 영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아시아 증시는 국가별 휴장 일정이 엇갈렸다. 일본은 21~23일 휴장한 뒤 24일 거래를 재개했고, 중국 본토는 25일 휴장했다. 홍콩은 24~25일 정상 거래했으며, 대만은 중추절과 교사절로 25~28일 휴장해 한국이 개장하는 28일에도 거래가 없다.

국내 증시에는 연휴 마지막 거래일의 반도체 강세와 유가 하락이 우호적이다.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를 앞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KOSPI의 단기 반등에 무게를 둔다. 다만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시장 전반의 상승세 확산보다는 이익 가시성이 높은 AI 밸류체인 중심의 차별화가 예상된다. 반등의 지속 여부는 실적 기대가 실제 이익 전망 상황으로 이어지는지, 금리와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다.

도표 1. 글로벌 증시 주간 수익률 비교(2026.09.21~0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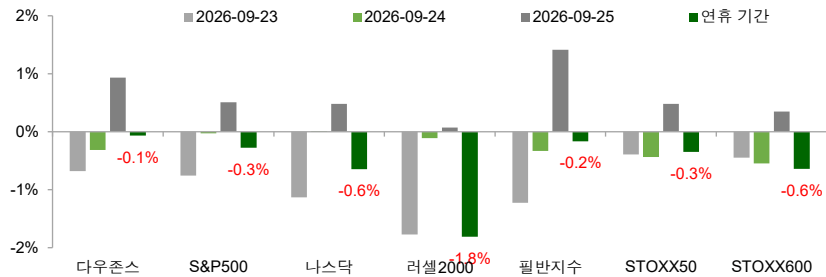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아시아 주식시장 휴장 일정

시장	연휴 전후 휴장	9/24	9/25	9/28
한국	9/24~25	휴장	휴장	개장
일본	9/21~23	개장	개장	개장
중국 본토	9/25	개장	휴장	개장
홍콩	-	개장	개장	개장
대만	9/25~28	개장	휴장	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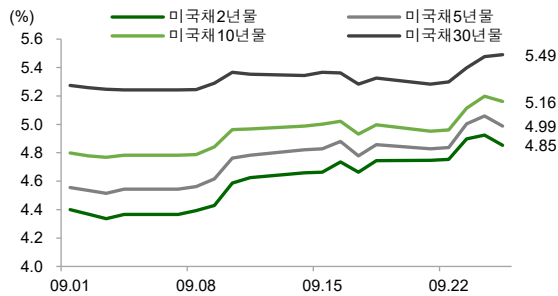
자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도표 3. 연휴기간 주요 지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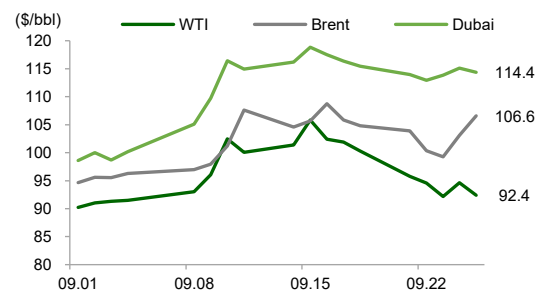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미국채 흐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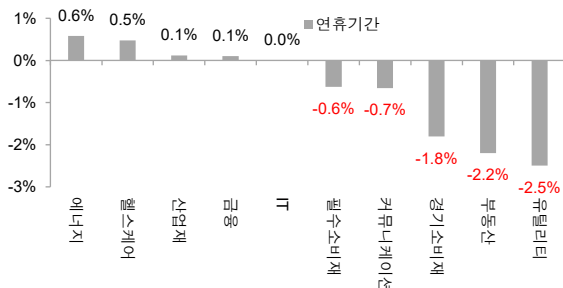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5. 국제유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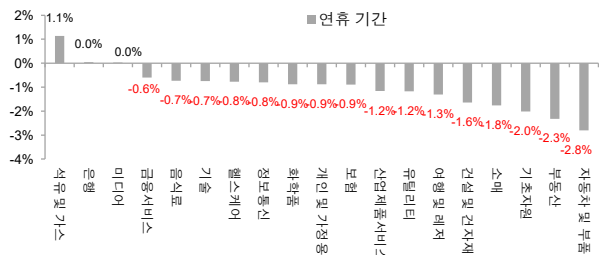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연휴기간 S&P500 업종별 수익률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연휴기간 EUROSTOXX600 업종별 수익률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 AI패권 경쟁을 다시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은 기존의 시장 전망을 크게 바꾸는 이벤트는 아니었다. 무역협정을 내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일부 비민감 품목의 관세 우대에 합의했지만, 희토류 공급 등 주요 쟁점은 남았다. 새로운 상승 동력을 제공하기보다 당장의 충돌을 피하고 협상 시간을 확보한 데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11월 중국 선전 APEC 정상회의(11/18~19)와 12월 미국 플로리다 G20 정상회의(12/14~15)에도 상호 참석할 의향을 밝혔다. 한 차례의 '빅딜'보다 반복적인 정상 간 접촉과 실무협의를 통한 갈등 관리가 당분간 미중관계의 기본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에서도 위험관리 대화는 진전됐지만 기술 경쟁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중국은 인간의 통제와 협력, 각국의 강점을 살리는 발전을 강조했고, 미국은 초지능(SI) 대화와 사고 관련 소통 채널 마련을 성과로 제시했다. 양측 모두 위험관리에 초점을 맞췄으며, 개발이나 투자 속도를 함께 낮추는 구속력 있는 합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AI의 전략적 중요성과 투자 경쟁의 지속 가능성을 재확인한 이벤트였다. 시장에서 우려하던 AI 속도조절보다 인프라 투자 지속에 주목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한다. 양국이 AI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후속 협의체를 마련한 것도 기술 주도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모델 개발과 연산 능력 확보 경쟁이 이어지는 한 데이터센터, 고성능 메모리, 전력 인프라의 투자 필요성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 증시에는 예상 밖의 갈등 격화 없이 정상회담을 소화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제 시선은 기업 실적으로 이동한다. 9월 말 마이크론 실적과 10월 초 삼성전자 잠정실적을 통해 AI 수요가 메모리 가격과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 정도를 확인하게 된다. 여전히 국내 증시의 중심은 반도체와 AI 밸류체인이며, 단기 반등의 강도는 이들 기업의 실적과 향후 전망이 결정할 것이다.

도표 8.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및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구분	확인된 내용	영향
AI	- '미중 초지능 대화(US-China Super Intelligence Dialogue)' 출범 - 11월 첫 후속 협의를 열고 양국 정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별도의 소통채널 구축에 합의	- 개발·투자를 함께 감속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는 미확인 → AI 패권 경쟁 구도는 유지
관세	기존 합의 만료 시점 2026.11.10 → 2027.1.10로 2개월 연장	연장 기한을 11월 APEC(선전)-12월 G20(마이애미) 일정에 맞춰 짧게 설정 → 양측 모두 추가 협상 레버리지를 유지하려는 의도 → 1월 10일 전후 재협상 리스크 상존
미·중 무역위원회	- 비민감 품목 각 방향 \$300억에 우대 관세 적용 합의 - 미국 수입: 소형가전·완구·크리스마스 장식·유아용 카시트 - 미국 수출: 농산물·수산물·목재·화장품·의료기기 - 세부 품목·세율은 USTR이 9/28(월) 공개 예정	- 첨단기술과 무관한 품목 한정 → 전략 품목과 비전략 품목을 분리하는 '관리된 디커플링'이 제도화 - 중간선거를 앞두고 美 소비재 물가 부담 완화 성격으로 해석
이란	-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 재확인	- 기존 공식입장 확인 수준
희토류 대만	- 양 측 공식 언급 부재	- 유의미한 변화 없음

자료: 언론 종합, 백악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3분기 실적을 앞두고

1) 6월 말~7월 초 증시 복기

6월 말 사례에서 먼저 구분할 것은 실적 발표 직후의 반응과 이후 새로운 악재에 대한 반응이다. 6월 24일 미국 장 마감 후 발표된 마이크론의 FY2026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았다. 매출액은 414.6억달러, 조정 EPS는 25.11달러로 당시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15.6%, 20.8% 상회했다. 다음 분기 매출 가이드선도 500억달러로 제시해 추가 성장을 예고했다. 단순히 지난 분기의 실적이 좋았던 데 그치지 않고,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높인 발표였다. 이를 반영한 2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5.29%, 13.06% 상승했고 KOSPI도 5.42% 올랐다.

그러나 26일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달라졌다. 애플이 메모리 등 부품 비용 상승을 이유로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인상하면서 메모리 업체의 수익성 개선이 고객사의 비용 부담과 최종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됐다. 반도체 업황 호조를 확인한 직후에도 그 호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재차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단기 급반등에 따른 차익실현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5.30%, 8.36% 하락했고 KOSPI는 -5.81%로 전일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29일에는 중국산 메모리의 대체 가능성이 새로운 부담으로 더해졌다. 주말인 27일 애플이 CXMT 메모리 구매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지지를 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에서 고객사의 공급처 다변화로 이동했다. 실제 채택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 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기존 메모리 3사의 가격 협상력 약화 가능성이 투자심리를 압박했다. 삼성전자는 배당락일인 29일 4.86% 하락했다. 사후 확정된 주당 배당금 374원을 배당락 전일 증가 339,500원과 비교하면 약 0.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날 하락은 배당에 따른 가격 조정보다 중국산 대체 우려와 매도 압력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7월 초에는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문까지 겹쳤다. 7월 1일 미국에서 메타의 유휴 컴퓨팅 자원을 활용한 클라우드 사업 진출 구상이 보도되자, 시장은 이를 기존 설비의 수익화뿐 아니라 AI 인프라 과잉투자 가능성과 연결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둔화, 중국산 메모리 대체, AI 컴퓨팅 공급 과잉이라는 우려가 연달아 제기되면서 마이크론 호실적의 추가 지지력이 약해졌다. 2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06%, 14.57% 하락했고 KOSPI도 7.89% 내려 실적 악화가 확인됐다고보다 향후 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 국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7월 7일 삼성전자 잠정실적은 투자심리를 되돌리기에 충분하지 못했다. 영업이익 89.4조원은 당시 약 84~85조원의 시장 전망을 웃돌았지만, 일부 투자자의 기대가 90조원대까지 높아져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를 실적 부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미 시장의 관심이 당장의 이익 규모에서 하반기 업황과 가격 상승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동한 가운데, 잠정실적만으로 관련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다.

수급 부담도 실적 발표 이전부터 누적돼 있었다. 외국인은 6월 19일부터 7월 7일까지 13거래일에 걸쳐 KOSPI를 40.9조원 가량 순매도했으며, 7일에도 약 2.9조원을 순매도했다. 7일 당일 삼성전자와 KOSPI는 각각 6.92%, 4.91% 하락했다. 따라서 이날은 기대를 웃돈 실적에도 업황 우려와 수급 불안이 우세했던 차익실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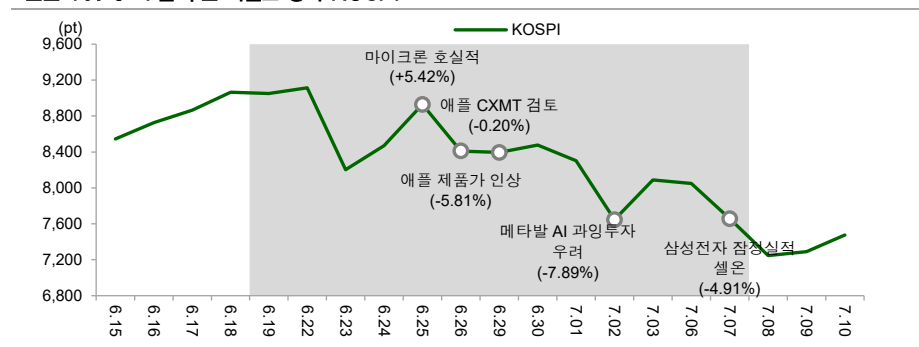
결국 6월 말~7월 초 사례의 핵심은 호실적 자체의 부족보다, 실적 발표 이후 이어진 새로운 악재와 매도 압력이 반등을 지속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도표 9. 6~7월 주요 이벤트와 당일 주가 반응

국내 거래일 / 이벤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KOSPI
6/25 마이크론 실적 반영	+5.29%	+13.06%	+5.42%
6/26 급등 다음 거래일	-5.30%	-8.36%	-5.81%
6/29 삼성전자 배당락	-4.86%	-1.68%	-0.20%
7/7 삼성전자 잠정실적	-6.92%	-6.06%	-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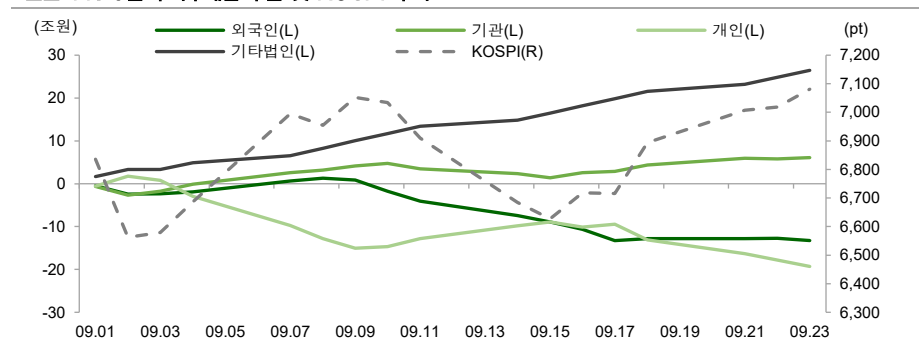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6~7월 주요 이벤트 당시 KOSPI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9월 투자주체별 수급 및 KOSPI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달라진 것은 주가의 위치와 변동성

6월 말과 지금의 차이는 실적 발표 일정인 아니라, 그 실적을 기다리는 주가의 위치에 있다. 당시 마이크론의 호실적은 반도체 강세를 재차 자극했지만, 이후 메모리 수요와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상승분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현재 KOSPI는 7월 급락을 거치며 주가가 상당 부분 조정된 상태다. KOSPI는 7월 22.2% 하락한 뒤 8월 3.4% 반등했고 추석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9월 23일에도 7,080pt에 머물렀다. 6월 말보다 낮아진 가격에서 실적을 확인한다는 점은 당시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주가가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등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주가 조정만큼 이익 전망도 낮아졌는지다. 7월의 하락에는 당장의 실적 부진보다 향후 메모리 가격과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시장은 그동안 주가에 반영한 우려가 과도했는지 다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론 실적에서 주목할 부분도 지난 분기 예상치 상회 여부보다 다음 분기 매출·수익성 전망과 고객사의 구매 수요다. 이는 삼성전자 잠정실적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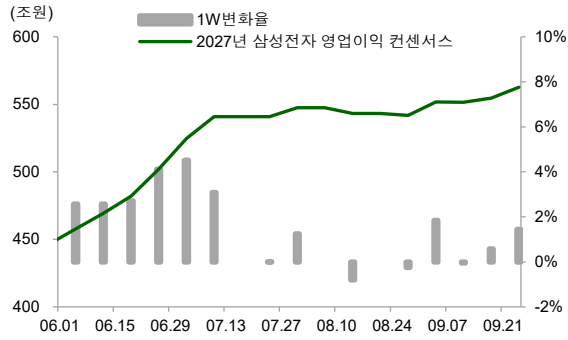
수급에서도 개인이 외국인 매도를 받아내던 6월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6월 외국인은 KOSPI에서 48.4조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2.4조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9월 1~23일에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3.3조원, 19.3조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이 6.14조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기타법인의 26.5조원 순매수가 매물을 흡수했다. 개인의 저가 매수에 의존했던 시장에서 개인도 매도에 나서고, 기업의 매수가 지수를 지지하는 구도로 바뀐 것이다.

다만 매도 압력이 충분히 줄었는지는 VKOSPI 하락 전환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현재 지수 방어에 중요한 축인 자사주 매입은 종료가 예정된 이벤트다. 기업의 매수가 이어지는 동안 실적 확인을 계기로 외국인의 매도가 줄거나 순매수로 전환되는지가 반등의 지속성을 좌우할 것이다. 변동성이 내려온 상황인 만큼 예상보다 강한 실적 전망이 더해질 때 외국인의 재진입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

이번 주부터 10월 초까지는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KOSPI의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조정을 거친 가격에서 실적을 확인하는 데다, 연휴 중 미국 반도체의 상대적 강세도 투자심리에 우호적이다. 이번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6월 말과 같은 차익실현을 기계적으로 예상하기보다, 메모리 수요와 가격 전망이 주가에 반영된 우려를 얼마나 덜어주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추세로 이어지려면 실적 확인 이후에도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며 자사주 매입 이후의 수급 공백을 메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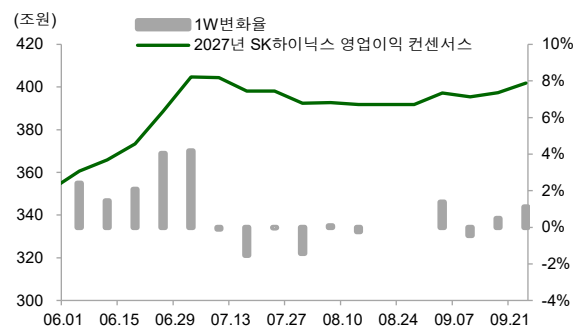
반대로 단기 판단을 바꿀 신호는 1)좋은 실적에도 발표 당일 상승분을 다시 반납하는 경우, 또는 2)금리와 유가가 재차 급등하는 경우다. 이때는 이익 개선보다 매물과 할인율 부담이 우세하다고 보고 반등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

도표 12. 삼성전자 2027F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및 1W 변화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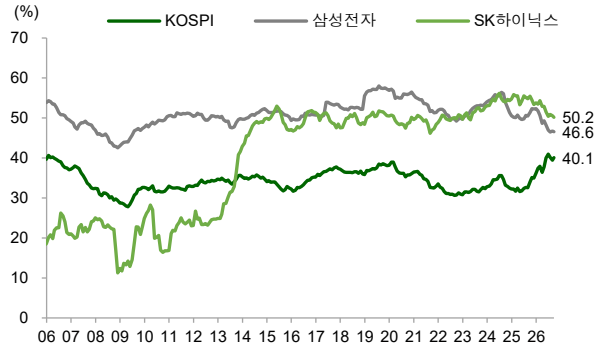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SK하이닉스 2027F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및 1W 변화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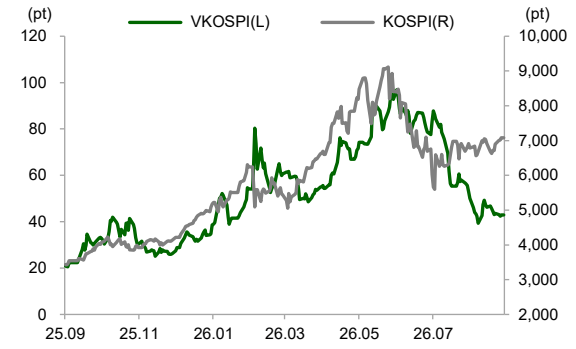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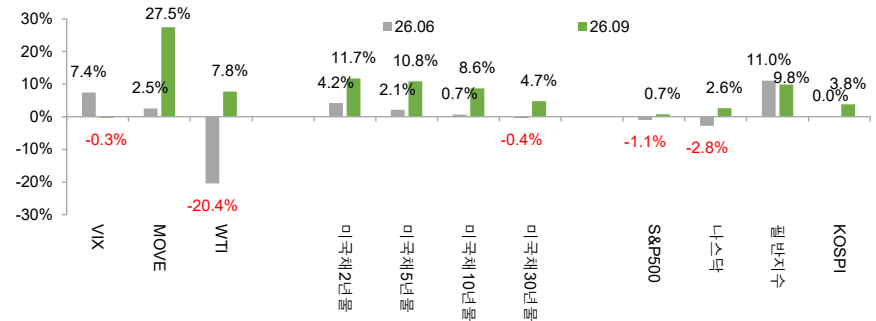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VKOSPI 및 KOSPI 추이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6. 주요 매크로 지표 6월 vs 9월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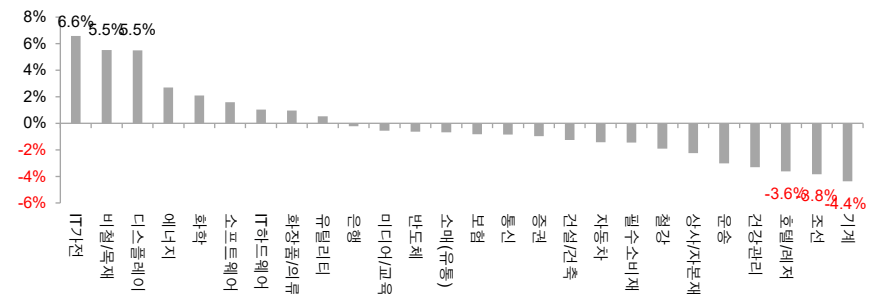
9/23 KOSPI 종가
7,080pt,
주간 수익률 +2.7%

지난주 KOSPI는 7,080pt로 마감하며 주간 수익률 +2.7%를 기록했다. 주 초 국제유가와 미국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에서 AI 투자 기대가 재차 확대되는 흐름이었다. 국내증시는 9월 1일~20일 수출 데이터에서 국내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이 확인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다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반복됐다.

여닝 모멘텀도 다시
AI밸류체인으로

한편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KOSPI 12개월 선행 EPS 추정치는 건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IT가전과 반도체의 이익 추정치 상황이 이어졌으며 화학, 운송, 유통의 개선도 두드러졌다. 반면 보험, 조선, 상사/자본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향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에너지, 건설/건축, 자동차, 증권, 디스플레이는 이익 모멘텀이 하향되고 있다. 최근 주가 반등과 함께 이익 모멘텀 역시 기술주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반도체를 비롯한 AI 밸류체인 대형주의 실적 확인이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표 17. 한국 증시 업종별 주간 수익률(~2026.09.23)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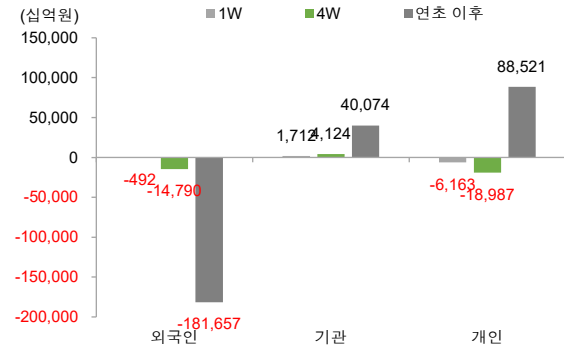
도표 18. 한국 주간 업종별 수익률 및 12MF EPS 추정치 변동 테이블(~2026.09.23)

	주간 수익률 (%)					12M fwd EPS 추정치 변동 (%MoM)				
	08.28	09.04	09.11	09.18	09.23	08.28	09.04	09.11	09.18	09.23
KOSPI	-1.8	-1.5	3.3	-0.2	2.7	5.2	3.8	4.0	3.7	4.1
KOSDAQ	4.5	-3.0	0.9	0.8	2.1	1.6	1.9	1.6	1.6	1.5
에너지	0.4	3.1	1.8	-4.6	5.5	-22.2	15.3	16.4	-0.0	-5.1
화학	9.2	-3.4	0.3	-1.6	-1.9	-1.9	3.1	6.6	5.2	11.0
비철/소재	10.6	-8.8	-3.1	-2.2	-1.3	-0.1	-2.5	0.7	0.6	-0.5
철강	9.1	-0.0	0.1	-1.7	-4.4	4.7	4.9	4.1	2.6	2.2
건설/건축	12.0	-5.6	9.5	-3.0	-3.8	0.8	-0.7	-2.5	-3.1	-3.0
기계	13.4	-7.5	6.7	-0.9	-2.2	3.7	2.9	2.8	2.7	3.1
조선	3.7	-0.9	4.3	-5.4	-3.0	12.5	4.8	4.5	2.5	2.0
상사/자본재	4.1	-5.3	2.3	0.3	-1.4	8.6	6.6	6.2	1.8	1.4
운송	4.9	2.0	-1.8	-0.7	1.0	5.5	3.8	3.5	4.2	5.2
자동차	-3.7	-3.4	-0.4	-4.6	-3.6	0.7	0.4	0.3	-0.6	-0.6
화장품/의류	9.4	-7.4	-3.3	1.3	-0.5	5.6	4.5	3.2	1.9	1.8
호텔/레저	3.9	-0.4	-1.2	-3.4	-0.7	-0.5	-3.1	-1.1	-2.4	-2.5
미디어/교육	4.1	-0.5	-0.5	-2.8	-1.5	-1.2	-0.8	0.7	1.8	1.8
유통	4.1	-2.4	-1.2	-2.5	-3.3	-0.7	0.3	0.7	1.7	2.3
필수소비재	5.0	-3.3	-2.0	-1.2	-0.2	2.5	2.8	1.9	0.7	0.6
헬스케어	2.0	-4.9	-3.9	-1.7	-1.0	0.8	0.8	0.3	2.1	1.7
은행	5.3	-0.2	2.8	-1.8	-0.8	0.4	0.5	0.4	0.5	0.4
증권	2.9	0.3	-0.9	-3.8	1.6	-0.6	-1.2	-1.0	-1.6	-2.3
보험	0.0	-2.7	2.4	-5.7	1.0	16.0	14.7	15.3	7.3	7.2
소프트웨어	2.0	-2.3	-3.2	-2.8	-0.6	0.1	1.9	0.4	1.2	1.1
IT하드웨어	7.6	-2.3	0.6	0.8	6.6	9.5	2.3	1.2	1.0	1.1
반도체	-6.5	-0.4	5.2	1.4	5.5	5.3	4.0	4.3	4.4	5.0
IT가전	11.6	-3.1	0.2	-0.3	-0.9	9.6	11.8	12.8	14.9	14.5
디스플레이	2.3	-2.6	-1.2	-0.9	0.5	-0.6	7.0	2.6	-7.3	-12.0
통신	-0.6	-3.7	-1.7	-1.7	-0.7	2.3	2.3	0.8	1.1	1.2
유틸리티	6.4	-3.0	8.1	-7.0	-1.5	-14.7	-14.2	-16.8	-2.9	-1.2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KOSPI와 KOSDAQ을 모두 순매도했으나, 반도체에 대해서는 약 7,230억원을 순매수하며 최근 이어졌던 매도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이외에도 에너지, 운송, 화장품/의류, IT가전을 순매수한 반면 기계, 상사/자본재, 건설/건축, 자동차, 은행은 순매도했다. 기관은 KOSPI를 순매수한 반면 KOSDAQ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IT하드웨어, 은행, 상사/자본재, 운송을 순매수한 반면 소프트웨어, 조선, 기계, 자동차, IT가전은 순매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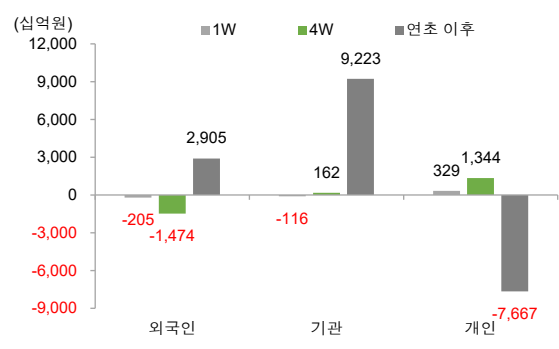
도표 19.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주) 2026.09.23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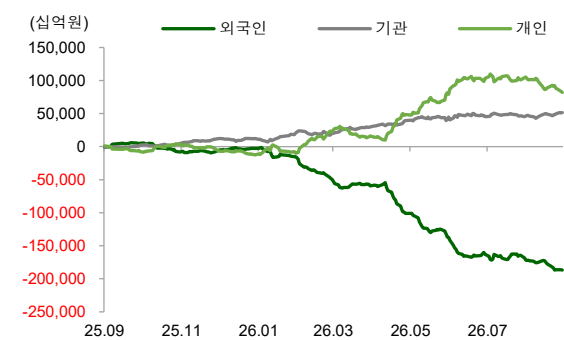
도표 20.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주) 2026.09.23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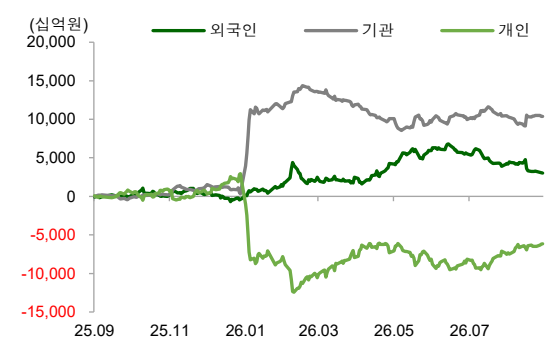
도표 21.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9.23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2.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9.23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3. 주간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반도체	723.0
	에너지	100.2
	운송	62.0
	화장품/의류	36.0
	IT가전	34.1
순매도 TOP5	기계	-424.6
	상사/자본재	-323.6
	건설/건축	-238.3
	자동차	-223.6
	은행	-192.7

주) 2026.09.23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4. 주간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반도체	2,083.5
	IT하드웨어	353.8
	은행	125.6
	상사/자본재	96.0
	운송	56.6
순매도 TOP5	소프트웨어	-131.0
	조선	-125.3
	기계	-120.6
	자동차	-114.7
	IT가전	-112.5

주) 2026.09.23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9/28	9/29 미 8월 JOLTS 보고서 KMX	9/30 미 예산안 합의 시한 미 8월 PCE 미 9월 ADP 민간 고용 MU	10/1 한 9월 수출입동향	10/2
10/5	10/6	10/7	10/8	10/9
10/12	10/13	10/14 삼성전자 잠정실적(예정)	10/15	10/16
	JPM, GS, WFC, C, JNJ, UNH	미 9월 CPI BAC, MS, ASML	미 9월 PPI 미 9월 소매판매 SCHW, BX, FCX	
10/19	10/20	10/21	10/22 한국은행 금통위	10/23
	GE, PM, NFLX, VZ, GM	LRCX, IBM, T	INTC, WDC, MA, PG, MCD, SHOP	XOM, CVX, ABBV
10/26	10/27 연준 FOMC(~28 일) MSFT, GOOG, KO, LMT	10/28 META, TSLA, GEV, BA, NOW SK하이닉스(예정)	10/29 ECB 정책금리 결정 미 9월 PCE 미 3 분기 GDP 속보치 AMZN, AAPL, LLY, MRK, MRNA 삼성전자(예정)	10/30

주) 기업 실적 발표일은 추후 변동 가능, 각국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